

민원 요지 두 번째

민원인들은 강릉시 강동면 ○○○,○○○입니다.

민원인들이 2023. 11. 20. 강릉시로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12. 7. 자로 받아보았으나 역시나 예상한대로 담당 공무원들은 하천부지와 국유지를 점용 허가 받은 피허가자를 숨기려 애쓰는 모습과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보다는 오히려 피허가자인 ○○○ 전 시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전전공공하는 모습에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차라리 ○○○ 전 시의원이 무서워서 저희 공무원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 저희 입장을 고려해주시고 모른척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으면 민원인들과 마을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모르는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무엇보다 실망했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앞섰던 이유는 다르게 아니라 담당자들께서 민원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안인리 517번지는 주인없는 미등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점용허가를 내어줄 수도 없고 또 농작물 경작을 할 수 없다고 민원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 모친 ○○○(사망)에게 점용허가를 내어주었고 그 뒤에는 ○○○에게 하천 부지 점용권에 대한 상속 승계 허가까지 해주었으며 실제로 피허가권자가 아닌 ○○○리에 사는 이○○씨(이 사람은

여러곳에 임대한 농경지 약 4만평을 경작)가 직접 배추 농사를 지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약과 비료, 모종을 샀던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을 보면서 참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담당자들과 민원인들이 서로 연락하여 민원 제기한 해당 토지에서 만났었고 민원인들은 “이곳 세 필지의 하천 부지땅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점용허가를 냈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담당자께서는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실들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점용허가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질 않고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인데 왜 유독 ○○○가 점용허가 받은 내용만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한 하천부지 세 필지에 대한 실경작자가 누구인지를 시청에서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담당자께서는 “저희 강릉시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달리 강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민원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에 관하여는 하천법을 적용하여 강릉시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리가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와 영장집행 그리고 검찰 송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게만은 이 특사경 제도가 적용되질 않나 봅니다.

네 번째 거짓말 민원인들이 시청 담당자를 만났을 때 안인리 306번지

일부가 점용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타용도로 불법 사용되었고 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인터넷상의 위성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는 이렇듯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되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고 전대 등 허가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 상대로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싫었던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민원의 주된 요지는

강릉시 담당 공무원은 왜 위 4가지 거짓말을 민원인들에게 했는지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다시금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이 재 수사한 뒤 그 수사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